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요 21:15>



전주대신문

제 777호

2011년 5월 30일 월요일

JJ Superstar Festival

"꿈, 열정 그리고 비상"



품격있는 축제로 구성원 화합의 장

지난 25일 제38대 대한민국 총학생회(회장 박솔)와 제27대 하이파이브 총동아리 연합회(회장 김양현)가 주관하는 '2011 JJ Superstar Festival'이 꿈, 열정 그리고 비상이란 주제로 1만 2천여 학우가 참여하는 가운데 3일 동안 노천극장 일대에서 펼쳐졌다.

25일 오후 5시 JJ Superstar 퍼레이드와 주요인사의 축사를 시작으로 축제가 열렸다. 이날 열리는 행사는 대동제 주막 맛 대결, 슈퍼스타 족구대회, 슈퍼스타 런닝맨,

CCM대회, 동아리 한마당, 슈퍼스타 J 등이 진행되었다.

26일에는 제16회 백마응원대제전이 진행되었고, 백마응원단의 공연과 배재대, 호남대, 선문대, 계명대, 원광대, 경성대, 대전대 등의 공연과 가수 걸스데이의 축하공연이 열렸다.

27일에는 태권도 시범단 공연, 찾아라 나의 반쪽, 웨딩 패션쇼, 단대회장 장기자랑,

불꽃놀이 등과 가수 산이, 티아라의 축하공연이 열렸다.

박솔 회장은 "학우들이 꿈과 열정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구성원간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했으며, 이남식 총장은 "품격 있는 축제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행사가 되기를 바라며, 대학의 성장과 발전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대중 기자

■지·면·안·내■

- 2~4 News
2면 전북 최초 도서관간위탁, 문화정보학과책임운영
변주승교수 '2011대학의유산, 한국의미래다' 선정
3면 JJ Superstar Festival 현장사진
4면 한문교육과 성년의날 맞아 성년례 재현
패션산업전공 2011 졸업작품 패션쇼
외식산업학과 국제요리경연대회 금, 은수상
음악학과 협주곡의 밤
- 5 Opinion
독자투고
- 6 Culture
기자수첩, 문화산책
- 7 Opinion
교수칼럼, 미니인터뷰, 사설
- 8~9 Jump On
21C 아는 만큼 보인다
- 10 People
총부대 임동오 총장
- 11 Campus Life
학교기관 소개, 동아리소개
게릴라인터뷰, 스토리
- 12~13 Mission
로고스, 진리의샘, 거저씨
선교소식
- 14 중국어 신문
- 15 The JJ Globe

전주대신문 창간 1965년 5월 15일
우 560-75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200 전주대학교
발행인 이남식/편집인 양병선/편집국장
인쇄 제일출판/편집국 220-2442/운영실 220-2441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영원한 구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전주대학교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주대학교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행했던
모든 잘못과 죄를 회개하오니
공활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이 이 대학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도
인간적인 생각과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했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주대학교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구성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서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비전과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붙들어주시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합심하여
주님이 주신 놀라운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시며,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며 용서함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옵소서.

넘쳐나는 기도와 찬양의 소리로
어둠과 악의 세력이 떠나가고
천국 소망의 기쁨이 넘쳐나는
캠퍼스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평수교수(교수선교회장)



전북 최초 도서관민간위탁, 문헌정보학과 책임 운영

3년간 24억 지원받아, 취업의 문 확대 계기



익산시립마동도서관 MOU 체결을 통해 우리대학 문헌정보학과와 밝은 미래가 예상된다.

지난 16일 익산시(이한수 시장)와 우리대학(이남식 총장)이 익산시립마동도서관 민간위탁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특히 도서관의 민간위탁은 지역 중심적 봉사의 정착에 그 기본적인 취지를 갖고 있어, 이번

민간위탁을 수탁하게 된 우리대학 문헌정보학과에서는 보다 강한 주인의식에서 전공학생들의 전공 체험 및 졸업 후 취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동희 단장(산학협력단)은

“대학이 지식기반센터로써 지자체를 위해 협력하고, 지식과 연구인력을 활용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문헌정보, 도서관 운영 등 학생들의 수준 높은 대민봉사에 대한 현장교육도 가능하여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는 1일부터의 새로운 개관을 위해 인원채용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준비에 바쁜 문헌정보학과 교수님들은 학생들의 취업 기회가 확대되고, 향후의 또 다른 도서관민간위탁의 수탁에서 인근의 대학보다 선점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한편 전공이론을 바탕으로 한 전문적 도서관 경영에 대한 책임이 무엇보다 무겁다는 걱정도 전한다.

/전유정 기자

변주승 교수 '2011 대학의 유산, 한국의 미래다' 선정

'대학의 위대한 유산'으로 선정, 문화 국격 제고



변주승교수(역사문화콘텐츠 전공)팀이 번역한 '국역여지도서'가 교수신문이 주관한 '2011 대학의 유산, 한국의 미래다'에 최종 선정(선정위원회위원장 이배용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되었다. 총 50권에 이르는 국역여지도서는 한국학술진흥재단(현 한국

연구재단)의 지원으로 변교수와 한국사 전공자 20여 명이 2002년 5월 작업을 시작하여 2009년까지 8년동안의 연구 끝에 완역하여 출판하였다.(전주대학교 교 전국역총서1) 국역여지도서는 조선전기의 인문지리를 종합 정리한 '新增東國輿地勝覽'(신증동국여지승

람)을 증보한 인문지리지로서, 조선후기 지역사 연구는 물론이요, 조선후기 역사연구에 필수적인 자료이기에 대학의 위대한 유산으로 선정되었다.

변 교수는 “지난 10년 세월동안 한눈 팔지 않고 함께 고전번역에 매달려온 동료와 역사문화콘텐츠 전공 제자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무엇보다도 지역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다보면 전국적인 경쟁력뿐만 아니라 한국을 대표에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다는 본보기를 보였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8.9면)

스타센터 개관 및 HUNIVERSITY'출판 기념식

대학발전기금 모금 등 성황

스타센터 개관 및 HUNIVERSITY & Star Center Design Book 출판 기념식이 5월 19일 서울 프라자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있었다. 이 자리에는 김준규 검찰총장, 이경숙 이사장, 박철 회장 등 각급 단위의 기관장과 하객 18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재운 교수(특수대학원장)의 사회, 조정민 목사(서울 은누리교회)의 개회예배에 이어 Huniversity 저자 정상권 박사의 발간사 및 책자헌정이 있었다. 또한 이경숙 이사장(한국장학

재단), 박철 회장(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외국어대 총장), 정정길 원장(한국학중앙연구원/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영길 회장(대교협/한동대 총장), 양정무 회장(재수도권총동문회)의 축사와 대학발전기금 전달식이 이어졌다. 양정무 회장 외 회원 일동 1억원, 김복순 여사 1천만원, 오태식 원장(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의 대학발전기금 전달이 있었고, 가수 박기영의 축하무대가 이어졌다. 이남식 총장은 인사말에서 '스타센터의 건축, 대학의 발전

등이 모든 게 하나님의 주관하심으로 만들어진 선물이다'고 전제. '앞으로 전주대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우리대학은 지난 5월 3일 스타센터를 개관하고 최고수준의 교육환경을 만들어 학생만족도 100%목표로 진력하고 있다. 최근 전주대는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대상을 수상하는 등 대학의 브랜드가 높게 나타나 대학가의 주목이 되고 있다



전북은행 재직동문 홈커밍데이

발전기금 600여만원 기부

전북은행 재직동문 60여명이 지난 5월 4일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전북은행 재직동문 홈커밍데이'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졸업 후 전북은행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재직동문을 초청하여 변화된 학교의 위상을 알리고 동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본교와 전북은행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진행하게 되었다. 이남식 총장의 인사말을 시

작으로 전북은행 재직동문이 발전기금 638만원을 기부하였으며, 이후 스타센터 및 교내 투어를 진행하였다. 참가 동문은 “스타센터 투어를 통해 발전한 학교의 모습을 보며 놀랐고, 후배들이 이런 멋진 곳에서 학습할 생각을 하니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동문들의 힘을 모아 지속적으로 학교가 발전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4년연속 입학사정관제 우수대학 선정

우리대학은 지난해에 이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는 '2011년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우수대학'으로 4년 연속 선정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3일 '입학사정관제 우수대학'으로 우리대학을 비롯해 대학 20곳과 선도대학 30곳, 특성화 모집단위 운영대학 10곳, 입학사정관 양성, 훈련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9곳 등이 선정되는 등 현직 교수, 입학사정관,

교사 등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하였다. 이근호 처장은(입학관리처) “이 모든 결과들이 고교 대학 연계사업 및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좋은 평가를 이뤄낸 것 같다.”며, “앞으로도 입학사정관제도에 대해서 도내에서 최고의 대학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박선화기자

2011 중소기업청 마케팅 기반조성 사업 개강

3년 연속 호남지역 대표 기관으로 사업 선정

우리대학은 2011 중소기업청 마케팅 기반조성 사업에 선정되어 5월 12일(목) 자유관 116호에서 개강식을 가졌다. 이 사업은 오영택 교수(사업 단장), 이기훈 교수(운영팀장), 김주란 교수(마케팅 지원 팀장)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3년 연속 중소기업청 마케팅 기반조성 사업의 호남지역 대표 기관으로 선정되어 마케팅 기반이 부족한 호남지역의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CEO 및 마케팅 담당자에게 마케팅에 대한 인식제고, 활용전략 실습 및 컨설팅, 판로연계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현장 중심의 마케팅 역량강화지원을 목표로 6개월간 마케팅 교육 및 컨설팅 과정을 시작하였다. 2011 중소기업청 마케팅 기반조성 사업은 호남지역 21개 기업의 CEO와 실무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공통과정(10주), 심화과정(12주), 실행과정(6주)으로 진행되며 공통과정은 기업, 제품의 진단 및 분석, 기본역량강화교육, 심화과정은 모델 별 심화교육, 개별 컨설팅 등 맞춤형 프로그램, 실행과정은 모의 및 실전 마케팅으로 진행된다.

제35차 한국지역대학연합회의 참가

대학의 브랜드 전략 사례 발표

우리대학은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경남대학교에서 열리는 제35차 한국지역대학연합 회의에 참가했다. 지정대학 발표는 계명대, 아주대, 울산대, 호남대가 '대학의 인재상 구현을 위한 프로그램'을 주제로 각 대학의 사례를 발표하고, 특별주제 발표는 전주대, 경남대, 관동대, 한남대가 '대학의 브랜드 전

략'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한국지역대학연합은 전주대, 경남대, 계명대, 울산대 등 8개 대학이 지난 1995년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내 대학 간 상호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결성하여 지금까지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다. /이대중 기자

사진으로 보는 2011 JJ Superstar Festival

우리대학 1만 2천여 학우가 참여하고 '꿈, 열정 그리고 비상'이란 주제로 '2011 JJ Superstar Festival'이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노천극장 일대에서 열렸다.

대동제 주막 맛 대결, 슈퍼스타 족구대회, 슈퍼스타 런닝맨, CCM대회, 동아리 한마당, 슈퍼스타 J, 제16회 백마응원대제전, 태권도 시범단 공연, 찾아라 나의 반쪽, 웨딩 패션쇼, 단대회장 장기자랑, 불꽃놀이, 가수 걸스데이, 산이, 티아라의 축하공연이 열렸다.



'2011 International Day' 행사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우리대학 캠퍼스 일대에서 유학생들의 비전을 공유하고 문화교류 및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2011 International Day' 행사가 열렸다. 성적우수 유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한국어 노래자랑, 유학생을 위한 웰빙 체크, 국제영화 함께 즐기기, 다국적 문화 소개 및 음식 나눔행사, 유학생 체육대회 등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었다.

권희망 기자



한문교육과 성년의 날에 '성년례' 재현

한문교육과(학과장 소현성) 학우 30명(남녀 각 15명)은 지난 5월 16일 전주향교에서 열린 성년식으로 성년례를 재현해 갈채를 받았다.

전주시와 성균관 청년유도회 전북지부에서 주관한 이 행사에서 학우들은 머리를 빗겨 상투를 틀어 망건을 씌우는 관례와 머리를 올려 쪽을 지고 비녀를 꽂는 계례, 시가례, 재가례, 삼가례, 초례, 자관자, 예필 등 성년 전통관례를 재현했다.

행사에 참가한 박향학우(2년)는 "성년으로서 육체적·정신적인 것은 물론 법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책임지며 사회로부터 인정받으만큼 몸과 마음가짐을 더 바르게 가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외식산업학과 국제요리 경연대회 금·은메달 수상

외식산업학과(학과장 민계홍) 조리 동아리 학생(지도교수 전효진)들은 5월 7일과 8일 서울 aT Center에서 열린 '2011 대한민국 국제요리 경연대회'에서 학생단체 더운요리부, 학생 라이브 부문B, 서빙부문에서 금메달, 학생 라이브 부문A와 학생단체 찬요리부문에서 은상을 각각 수상하였다.

입상자는 학생단체 더운요리부 금상과 찬요리부 은상에 배정훈(4학년), 송미경(3학년), 이슬기, 이소라, 백합(2학년), 박세희, 안주은, 임재열(1학년), 학생 라이브 부문A 은상에 정희정(4학년), 황대선(3학년), 조현지, 이예령(2학년), 학생 라이브 부문B 금상에 송혜진, 임은지(3학년), 송강철, 김진경(2학년), 서비스 부문 금상에 권문정(4



학년), 김효곤, 장진, 이로미(3학년), 김세현, 이슬비(2학년) 등이다.

2005년에 신설된 외식산업학과는 제 1회 졸업생 100% 취업 등 취업률 및 입시경쟁률, 대학생 만족도, 전국 공모전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6월 2일(목) 오전 10시 예술관 JJ아트홀에서 '외식산업의 미래와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제4회 외식산업학과 학술제를 개최한다.

패션산업전공 졸업작품 패션쇼 'ICON'의 축제

해외연수 장학금, 패션쇼 지원금 등 후원 봇물

패션산업전공(전공주임 박현정)은 지난 25일 오후 7시 30분 스타센터 다목적홀에서 '2011 패션산업전공 졸업작품 패션쇼'를 열었다.

이번 패션쇼는 본래 기호 이미지에서 시작되어 오늘날 우리 생활 모든 분야에 존재하는 ICON을 주제로 기획되었다. 총 6개 스테이지로 기술, 환경, 스포츠, 다문화, 평화, 패션분야의 아이템을 테마로 한 의상 작품 81벌이 소개되었으며 digital light를 이용한 빛의 퍼포먼스도 함께

선보였다. 또한 국내 대표 캐주얼웨어 업체인 (주)세립TTC에서 1백만원의 패션쇼 지원금을 전달했으며, 지난 3일에는 (주)패션그룹형지(대표이사 최병오)에서 제2차 해외패션연수 장학금 5천만원을 전달했다. 이지민(문화관광학부 1)학우는 "눈이 즐거운 시간이었다. 다



문화(Cultural Mosaic)에서 나온 드레스를 보면서 학생들의 작품 수준에 놀라웠다"고 말했다.

태권도학과 선수권대회 우수한 성적



태권도학과(학과장 최광근)는 지난 14일 무주 반딧불 체육관에서

개최한 제8회 대한태권도협회장배 전국 태권도 품새 선수권 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품새 장, 중년부에 참가한 박동영 교수는 프로젝트 팀 '전주대 길'을 결성하여 1위에 입상하였다. 최상호 학생을 중심으로 창작 태권체조에 참가한 학생 8명은 3위에 입상하였다.

- 진로가이드 -

- | 서비스 매니저 양성과정(2학점 인정) | 레크레이션&웃음치료사1급 자격증반
- | MOS Master 자격증반 접수(3차) | 모의면접 경진대회
- | TOEIC 사관학교 | 취업캠프 및 취업교실
- 생애개발지원실(스타센터 235호)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학생회관 207호)

사회종합연구소 세미나, 6월 3일 연구동에서

오는 6월 3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전북지역 노인의 삶의 질 제고방안' 학술세미나를 '사회과학종합연구소'에서 주최한다. 윤찬영(사회복지학전공)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행사는 주제강연, 발표, 종합토론 형식으로 교수

연구동 8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사회과학종합연구소(평화관213호)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사회과학종합연구소 ☎ 063-220-2799)

/김광룡 기자

음악학과 협주곡의 밤

음악학과는 지난 26일 한국 소리 문화의 전당 연지 홀에서 '협주곡의 밤'을 열었다.

이번 연주회는 엄격한 오디션으로 선발된 학우들(4학년 김민정, 이은숙, 공나영, 박주영, 양진, 최원영, 최대한, 이슬기(3))의 열띤 노력과 역량으로 꾸며졌다. 바이올린 선율로 시작해서 끝날 때의 피아노 건반 소리가 마지막까지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음악학과장인 김용진 교수는 '아직 여러모로 미숙한 점이 있지만 열심히 노력한 만큼 격려해 주시고 아낌없는 박수와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시면 이 젊은이들의 미래는 더욱 더 자신감 있게 펼쳐져 갈 것이다'고 말했다.

교육봉사활동 오리엔테이션, 6월 1일 학생회관

오는 6월 1일 5시에 학생회관 3층 대강당에서 교육봉사활동 관련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 대상은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

을 포함한 비사범대학 중 10학년 또는 11학년 교직이수 예정자이다. (문의: 교직교육과 사무실 ☎ 220-2346)

전자출결 출석방법(학번입력 삭제) 변경

5월 30일부터 전자출결 출석체크 방법이 변경된다. 기존의 전자출결은 학번을 입력하여 출석체크를 할 수 있었으나 이제 이와같은 방법으로는 전

자출결을 할 수 없다. 전자출결은 학생증을 사용하거나 교통카드나 휴대폰을 등록하여 전자출결을 할 수 있다.

2학기 중국 자매대학 교환학생 선발

1. 신청기간 및 장소 : 6월 2일, 국제교육교류원(스타센터 A209호)
2. 전형일시 및 장소 : 추후 개별 통보
3. 전형방법 : 대학성적 40% + 회화 30% + 서류 20% + 태도 10%
4. 문의 : 국제교육교류원

관광경영학과 임실치즈 견학

관광경영전공(주임교수 류임평) 3학년 20여명의 학우들이 송광인 교수의 '녹색관광론' 수업의 일환으로 지난 11일 치즈마을과 치즈밸리에 다녀왔다.

생활체육전공 교수 재학생에게 장학금 수여

체육학부 이상행, 김용선, 홍성택 교수는 지난 4월 27일 체육관에서 생활체육전공 학생 6명에게 장학금 250만원을 전달하였다.

이번 장학금 수여자는 교수 장학금에 김남석(4학년), 송재선(3학년), 김혜진(2학년) 학우이며, 봉사 장학금으로 안진환(2학년)학생, 최현흠, 박상민(1학년) 학우이다.

선물 gift

농림수산식품부 지정 한식요리전문대학
전주대학교 문화관광대학 한식요리학과
제9회 졸업작품전
5월 27일(수) 10:00 ~ 6월 10일(토) 18:00
장소: 학생회관 207호

독자투고

스승의 날의 참뜻은 무엇인가?



문영균
(언어문화학부 1)

‘스승의 날이면 가장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일까?’ 선생님이 떠오른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우리 학과는 학생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교수님

께 드릴 꽃을 준비하고 선물도 드렸다.

매년 스승의 날이면 선생님과 교수님께 감사드리는 날이다. ‘스승의 은혜’를 부르고 조그마한 선물일지라도 진심을 전하는 시간이다. 그러나 요즘 학생들은 그 날의 참뜻을 모르고 축제라는 생각으로 즐기거나 형식적인 의례의식을 행한다는 소식을 인터넷 뉴스를 통해 접했다. 왜 그럴까 궁금했다. 그 이유는 선생님들이 행정 업무가 많아 수업준비와 학생 관리에 소홀해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점점 존경할 만한

스승이 사라져가고, 선생님들도 학생들에 대해 애정을 가지지 못한다. 그러다보니 스승의 날의 의미가 퇴색되어 버려 학생들만의 축제로 변질되어 버리지 않았을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한 스승의 날인가?’ ‘학생만을 위한 걸까?’ 아니면 ‘스승을 위한 걸까?’ 학생과 선생님뿐만 아니라 이 사회 구성원 모두가 그 의미를 되새기고, 제자는 스승을 존경하고 스승은 제자를 존중해 나간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스승의 날이 되지 않을까 싶다.

독자투고

새로운 시작



강은미
(대체건강관리학부 1)

새롭게 시작할 때는 열정적으로 목표를 가지지만 시작한 후에는 점점 그 열정은 사라지고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는 나를 발견한다. 그래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쯤 혼자 생각으로만 끝내는 것보다 독자투고를 쓰면

서 나를 되돌아보기로 했다.

전주대학교에 약간은 두렵고 설레는 마음과 함께 큰 열정을 가지고 들어온 첫날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5월의 끝자락에 서있게 되었다.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강의실에 가는 것도 이제는 한 번에 갈 수 있을 정도로 대학 생활이 몸에 베이면서 적응이 되어가고 있다. 친구들과 사귀고 동아리에 들어가면서 학교에 아는 사람들도 많아진다는 즐거움과 고등학교 때와는 다르게 무엇에게 얽매인다는 느낌이 사라지니 대학생들은 점점 재미있어졌다. 하지만 적응이 되고 재미있어지는 만큼 시간은 대학생들은 더 빠르게 흘러갔고, 대학생들의 꽃이라는 축제도 맞이하게 되었다.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동안 아무런 목표 없이 사는 나를 발견했을 때, 문득 대학교에 들어온 첫날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전 모두가 그렇듯 나도 대학생활을 알차고 보람 있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루고 싶은 것들,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하나 적어보면서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어디로 간 건지 사라져버렸다. 몇 달 되지 않은 대학생활이지만 목표 없이 하루하루 흘러가는 데로 살고 있었다.

후회할 것 같은 내 모습이 그려지면서 미래가 두려워진다. 지금까지 보냈던 시간들이 후회가 되고 반성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예전의 좋지 않았던 경험이 밑거름이 되어 대학에 처음 들어오던 그 의욕과 열정을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이루고 싶은 목표를 하나하나 다시 떠올리고 다듬으면서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남은 대학생활을 새롭게 세운 멋진 목표와 함께 알차고 보람된 대학생활을 만들 것이고 또 다시 나태해지는 시기가 올 때쯤 지금을 떠올리며 다시 힘차게 나아갈 것이다.

기자칼럼

함께하고, 소통하는 축제



김광룡 기자

1년에 단 한번 있는 우리들의 문화인 축제. 각 단대 학생회와 총학생회의 퍼레이드 참여, 신나는 동아리 공연과 초청 공연 및 행사 등 볼거리가 많아졌다. 긍정적으로 발전한 모습이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

과거의 축제는 멀리 있던 친구들도 찾아와 축하해주었고, 격려하며 반가운 마음으로 함께 어울리는 신명하는 자리였다. 공감하는 행사의 모습이자 소통의 장소였다. 그렇다고 요즘 축제가 소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본래 축제의 의미가 퇴색되어 ‘마셔라! 부어라!’를 외치는 쾌락적인 모습이 보인다는 사실이다.

우선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리고 ‘클럽’과 ‘디스코 팡팡’ 시설과 같은 시도는 좋았지만 축제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 같았다. 이성과의 만남이나 추억도 좋지만 육구중족

이 우선시되는 모습은 막연한 만남이 아닌지 돌아켜보아야 한다.

그렇다고 나쁘다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소위 일컫는 ‘FM’을 바라는 것도 아니기에 목적을 잃어서는 안되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핵심은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한다’에 대한 축제를 즐기는 학생들의 의식이다.

어디까지나 형식이 변하고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점이 축제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번 축제 또한 비판보다는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한다. 그러기에 학교와 학생이 함께 도전하는 우리대학이 앞으로 발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순간 한순간 축제처럼 신명나는 캠퍼스가 되기를!

2011년 육군 대학 軍 장학생 모집

Republic of Korea Army

지원자격

- 연령: 입원일 기준 만 20~27세 남성
- 학력: 4년제 대학 학군입학이 되어있는 1, 2, 3학년
- 전역자의 동의와 재입학보통합격증 가능

지원서류

- 인터넷 육군모집 홈페이지 접수
- 서류제출(육군 인사사행부)

모집기간 : 2011. 5. 2 ~ 7. 8

선발절차

- 1차: 필기평가, 서류전형
- 2차: 화형: 대학성적, 면접평가, 체력검정, 신체검사, 민생검정, 심원검정

복무기간

- ROTC: 6년 4개월
- 학사참모: 7년

대우 및 특전

- 대학기 장학금 지급
- 의무복무기간+입학금수에 기간 추가 복무
- ROTC(지원사 및 학사참모) 임관
- 국내 민간대학원 석·박사 유학교육 기회 부여 (장기복무선발자)
- 미국 및 우방국 군사교류 기회 부여(장기복무선발자)

문의처 및 모집안내

- 각 대학 학군단
- 육군 인사사행부 선발팀: 02-505-7144 / 042-550-7144
- 육군 대표전화: 1588-8953(육군으로 오십시오)
- www.goarmy.mil.kr(육군모집)

이 QR코드를 스캔하면 육군모집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육군본부

www.goarmy.mil.kr(육군모집)
전국대표: 1588-6953

NAVER: 육군모집

기자/수/첩

학교식당 이용합시다!!



점심시간만 되면 고민이 많아진다. 11시가 되어 학생식당 문이 열리면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하는 고민과 함께 길게 늘어진 줄은 입맛을 떨어지게 한다. 학교 밖 음식점과의 거리가 먼 우리학교 특성상 학생식당을 찾게 된다. 하지만 1층과 2층으로 나뉜 학생식당은 1만학우가 이용하기엔 공급과 수요에 맞지 않는다. 최재경(물류무역학과 2)학우는 "2층식당의 경우 학생들이 가장 몰리는 시간대에 음식을 받은 후, 자리가 없어 한참동안 서성인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런 이유에서일까? 요즘 우리 학우들은 학생식당 보다 강의실 안에 배달해서 먹을 수 있는 중국음식이나 도시락을 선호한다. 학생식당은 엄연히 학생들을 위한 식당이다. 그런데 주체인 학생들이 식당을 이용하지 않는다. 이종행 점장(학생식당)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생식당보다는 밖에서 사먹거나 시켜먹는다. 작년보다 식당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현저히 떨어져 식수 예측이 힘들다."며 다수의 학생들이 식당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암묵적으로 우리 대학은 강의실 안에서 배달 음식을 취식할 수 없다. 먹고 난 후 그릇들이나 잔반처리, 음식냄새는 다음 강의시간 학생들과 교수님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또한 매점에서 빵이나 라면 등으로 점심을 때우는 학생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학생식당은 어떻게 운행되고 있을까? 식단은 주단위로 3주마다 바뀌며, 1층은 카페테리아 형식으로 주 반찬과 부 반찬, 국, 음료수, 김, 김치로 구성되어 있다. 2층은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

기로 만드는 음식이 주를 이루며 학생들에게 보다 더 나은 양질의 식단을 만들고 있다. 또한 공부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요리를 만들기 때문에 위생상태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각 식당별로 한 달에 3번 서로 점검을 하는 '크로스 점검'으로 개선을 하고, 본사에서 '위생안전팀'이 불시에 나와 점검을 하여 위생상태, 유통기한 등 법적사항을 철저히 검사하고 있다. 가격도 똑같은 메뉴지만 학교 밖의 음식점보다는 저렴하게 맞춰 학생들의 주머니사정을 고려하였다. 올해부터는 점심시간 학생들이 몰리는 경우를 대비하여서 2층보다 한산한 1층으로 몇 가지 메뉴를 이전시켰고, 식사시간을 30분 앞당겼다. 매일 점심 학생식당을 이용하는 김상아 학우(부동산학과 2)는 "밖에서 먹는 음식들은 조미료 맛이 강해 몸에도 안 좋은 반면에 학생 식당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식당이어서 인건비 저렴한 가격

학생측 뒤처리 문제 많은 배달음식 자제해야 식당측 다양한 메뉴, 맛, 적정가격 신경써야

에 밥맛도 좋고 믿을 수 있는 재료를 쓰기 때문에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이종행 점장(학생식당)은 "연초부터 광우병과 돼지고기 가격 상승으로 야채 값과 고기 값이 많이 올랐지만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한두 가지만 빼고 동결을 했다. 그만큼 우리 학생들이 학생식당을 많이 이용하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학생들을 위한 학생식당을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인가? 학교에서 선택한 사업체인 만큼 검증된 맛과 깨끗한 위생상태, 비교적 저렴한 가격이 받쳐주고 있는 학생식당. 오늘 점심시간은 학생식당으로 발길을 돌려보자.

/전유정 기자

■ 문화산책 · 책

김미경의 아트스피치 -대한민국 말하기 교과서-



과거에는 가정안에서 아이들이 말을 하면 '말대답'으로 간주했기에 우리나라는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말하거나 토론하는 문화가 아니었다. 한국인이 외국인들에 비해 설득력, 협상력, 표현력 등이 모두 떨어지는 것도 이와 연관된다.

현실은 다르다. 사람은 집단을 이루기 때문에 소통이 필요하다. 일상생활에서 언어가 쓰이기 때문에 스피치는 중요시된다. 필자는 "스피치는 사람의 영혼을 감동시키고 설득하는 일이다"라며 스피치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있다.

이 책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에피소드로 만들어 구조를 짜고, 적절한 단어들을 넣어 매끄럽게 다듬어준다. 또한 청중에게 잘 전달되도록 말의 크기, 강약, 속도, 손짓, 몸짓 등을 강도 높게 연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리는 이것을 '공감 화법'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면 말은 청산유수였지만 정작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는 브리핑이 있다고 하자. 그 말은 핵심이 빠진 것이다. 사람들은 점점 지루하게 느끼게 되고 소통하지 못하게 된다. 마치 대학교수가 초등학생에게 학문을 가르치는 것과 비유된다.

또한 대화에는 청자와의 공감이 중요하다. 서로 공감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통할 대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교훈이 말해주듯이 상대방의 대한 배려와 같은 화법이다. 알지도 못하는데 소통, 설득, 공감이 있을리가 없다. 공감 화법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능력이다.

필자는 말한다. "말의 본질은 결코 번지르르함에 있지 않다. 자신의 마음을 전해 남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소통의 기본이다. 그러려면 진실한 콘텐츠의 힘이 필요하다. 스피치에 농익은 철학과 경험이 들어가야 비로소 내 말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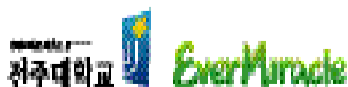
스피치는 단순한 스킵이 아니다. 상대방에게 나를 전하는 한편의 진실된 메시지와 같다. 스피치는 반항이 아니며, 사람이 숨쉬는 진솔한 표현이다. 많은 이들이 스피치의 달인이 되길 바라며...

/김광룡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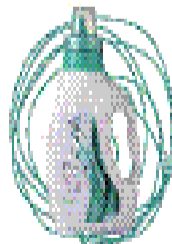
"EM을 만나면 생활이 건강해집니다."

EM(Effective Microorganisms)은 유용(좋은) 미생물군을 말합니다. EM제품을 사용하면 좋은 미생물이 우리의 건강하게 하며, 하천으로 흘러가 환경을 살립니다. EM제품은 로하스 인증을 받은 친환경 제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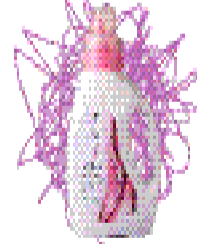
EM제품은 친환경성검 은리원의 유통망을 통하여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1588-3043 www.evermiracle.com



EM대부분의 가정용 12,000원



EM 발효 세척제 10,000원



EM 발효 손대위염제 10,000원



가정용 EM 발효 탈취제 8,000원



고수칼럼



하정 교수
(상남심리학과)

행복한 삶을 위한 2가지 선택!

바빠진다. 심리학자 Erikson이 말한 발달적 위기와 과업을 한꺼번에 여러 가지 경험하고 확립해야하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때까지 밀쳐두었던 '자기정체감'을 확립해야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로설계와 준비를 해야 하며 더불어 이성 관계에서의 '친밀감'도 획득해야 한다. 현실에서 동시에 이 두 가지를 성공적으로 잘 꾸려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를 좀 더 쉽게 좀 더 효율적으로 해 낼 수 있는 지혜를 심리학자들에게서 빌려보면 어떨까?

우선, 자기정체감과 진로 설계를 살펴보자. 진로심리학자인 Super는 사람은 대체로 '자기개념'과 일치하는 진로를 선택한다고 보았다. 자기개념은 Erikson이 말한 '자기정체감'의 일부로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이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여러분이 안정되고 명료한 나에 대한 이해를 구축하도록 다양한 경험에 참여하기를 권한다. 운동, 여행, 취미 및 여가활동, 학술활동, 종교활동, 다양한 문화체험 등... 전문가를 만나고 멘토를 만드는 것이 필요할 때도 많다. 진로상담 등 심리학 강의를 듣거나 학생상담센터에서 상담을 직접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경험을 통해 자기를 잘 살리면서도 긍정적인 관점의 '자기개념'을 형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친밀감을 확립하는 과업이다. 여러 심리학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기에 친구관계에서 우정을 제대로 경험하는 사람이 이성관계에서의 친밀감을 획득하는 것이 쉽다고 한다. 무엇보다 이제 이성교제를 함으로써 고립감에 빠지지 말고 '친밀감'을 획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각자 어떤 사랑의 모양을 그릴 수 있을지 고민해 보기를 권한다. 심리학자 Sternberg는 사랑의 모양을 원도 아니고 네모도 아닌 삼각형으로 표현했다. 다른 아닌 '사랑의 삼각 이론'으로 친밀감, 열정, 그리고 헌신(책임)의 3요소가 커다란 정삼각형을 모양을 그려낼 때 성숙하고 완전한 사랑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짝이 너무 작은 사랑의 삼각형의 그리고 있다면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친밀감이 없이 열정과 헌신만이 존재하는 열빠진 사랑, 헌신만이 존재하는 공허한 사랑, 열정만이 존재하는 도취적 사랑에 빠지지 않기를 당부하고 싶다.

이제 계절은 뜨거운 여름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점점 짙어가는 녹음 아래에서 여러분의 토끼 두 마리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이들을 계속해서 잘 돌보고 키우기 위해 조금만 더 움직이자!

계절의 여왕, 5월은 역시 눈부시다. 캠퍼스 곳곳에 만발한 꽃들, 파릇파릇한 싹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더없이 행복하다. 아름다운 우리 학교 캠퍼스가 새 단장을 하여 더욱 돋보이는 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 눈에 그 무엇보다 나의 강의실에 앉아 있는 젊은이들이 더 아름답고 눈부시다. 맑은 눈망울과 뜨거운 가슴으로 각자 열망하는 미래를 꿈꾸고 준비하려는 모습뿐만 아니라 뭔가에 지쳐있는 듯하고 방황하는 모습까지도 20대의 나의 모습이 떠올라 살짝 미소를 머금게 된다. 그리하여 인생 선배로서, 심리학자로서 어김없이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 바로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2가지 선택을 잘 하면 됩니다. 진로와 배우자 선택!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잘 잡도록 지금부터 잘 준비하세요"이다.

우리 나라 대학생은 대학에 들어오면서

미니인터뷰



청년일자리 창출에 매진하는 유지필 전북지방중소기업청장

"기발한 아이디어로 1인 창업에 도전하라!"

청년층의 고용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학창업교육패키지사업, 실전창업리그,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등의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1인 창조기업과 참살이 서비스 창조기업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 요즘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는 사업들인가요?

"1인 창조기업"이란 지식서비스업과 일부 제조업 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 전문기술지식, 지식재산권을 사업화하는 개인과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으로서 대표자를 포함한 종사자가 1명인 기업을 말합니다.

현재 1인 창조기업 지원 사업으로는 중소기업이 1인 창조기업과 프로젝트를 체결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지식서비스 구매바우처사업, 1인창조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해주는 팀기술개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무료 교육을 지원해 주는 앱창작터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1인 창조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를 지정하여, 1인 창조기업에게 사무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세무, 법률 등의 전문가 상담, 교육, 정보제공 등 경영

지원도 받을 수 있어 자신만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살이 서비스 창조기업? 어떤 도움을 주는 사업인가요?

참살이는 우리가 흔히 들어온 "Well-Being" 개념으로, 참살이 서비스 창조기업이란, 창조적인 아이디어, 기술, 전문지식 등을 주요 생산요소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Well-Being 분야의 지식기반 서비스 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살이 서비스 창조기업 지원을 위해 전북지방중소기업청에서는 전주대학교를 참살이 전문 인력 양성 및 일반 소비자 체험을 위한 '참살이 실습터'로 지정하여 6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취업준비생에게 한말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은 지금 다양한 진로를 놓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자신만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대기업 취직만을 목표로 하지 말고 눈을 돌려 1인 창업에 도전하시거나, 미래유망 시장인 참살이 서비스 산업에 뛰어들어 보시길 권합니다.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의 열정과 패기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전유정 기자

외식산업학과가 중소기업청과 창업진흥원에서 하는 '참살이 실습터' 지정 사업에 호남권 중 유일하게 선정되어 향후 2년간 10억을 지원받게 되었다. 다양한 서비스지원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번뜩이게 만드는 전북 지방 중소기업청 유지필(사진) 청장을 만나보았다.

-중소기업청이라 하면, 솔직히 대학생들에게는 생소한 곳인데요?

우리나라 사업체수의 99.9%가 중소기업입니다. 대기업의 제품들도 실체는 분야별 고유한 핵심기술을 보유한 수천수만 개의 중소기업들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한 중소기업육성을 향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창업 및 벤처성장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 사회취약계층의 경영안정 및 자생력 제고기반을 구축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요즘 청년실업률이 심하게 대학생들에게 가장 큰 고민이 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청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요?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실업률이 3.7%입니다. 이중 청년실업률이 8.7%로

사설

2011 JJ Superstars Festival에 부쳐

개교 47주년을 기념하는 "2011 JJ Superstars Festival"이 5월25일(수)부터 27일(금)까지 '꿈, 열정, 그리고 비상'이라는 주제로 노천극장 일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첫 날은 꿈의 행진, 둘째 날은 열정의 도약, 마지막 날은 젊음의 비상이란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3일간의 축제를 통하여 젊음의 꿈의 행진과 열정을 도약하고, 그 열정을 통하여 젊음의 비상을 느낄 수 있었다.

학생회관 주변에 열렸던 예년의 축제와는 달리 올해는 노천극장 일원에서 열렸다. 또한 예년과는 달리 거의 모든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면서 젊음의 향연인 축제에 참여함으로써 성숙한 대학 문화가 정착된 것 같다. 또한 CCM 찬양 경연대회, 슈퍼스타 J 공개 오디션, 대학정보 수집경진대회 같은 슈퍼스타 런닝맨, 진로상담 및 적성검사 등의 학생상담 부스 운영, 자전거 마일리지 운동인 그린캠퍼스 등 시대적 현상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진정한 의미의 대학 축제가 되었다.

하지만 매년 되풀이되는 노천극장 좌석 윗편 공터 일대에서 펼쳐졌던 주막운영은 젊음의 향연이라기보다는 기존 세대들의 축제를 답습하는 것 같아 상당히 아쉽다. 전잠벌의 한 중심에 새롭게 우뚝 선 스타센터와 길 건너편에 늘어선 주막은 웬지 어우러지지 않는 서로 다른 두 모습처럼 어색해 보였다. 2012년도의 축제는 좀 더 성숙한 젊음의 향연이 되길 기대해본다.

이제 2011년도 축제도 막을 내렸다. 기말고사 기간이 다가온다. 2011년 1학기를 마무리할 시간이다. 축제로 인하여 비상한 젊음을 우리의 꿈과 열정을 도약하며 마무리를 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 마지막 결산이 젊음의 영광이고 승리가 되는 2011학년도 1학기가 되도록 하자.

익산시립마동도서관 수탁기관 선정의 의미

우리대학 문헌정보학과는 지난 5월16일 익산시와 익산시립마동도서관 민간위탁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6월1일 개관을 한다. 이 도서관의 운영 책임은 우리대학 문헌정보학과에서 맡아한다. 이는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첫 번째 사례로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전라북도 최초의 민간위탁 도서관이자 익산 소재 시립 도서관을 우리대학에서 맡아 운영한다는 것은 우리대학의 위상이 전북지역사회에서 명실공히 인정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전문성과 역동적인 도서관 운영에 대한 의지뿐 아니라 실무현장성을 강조한 문헌정보학과와 오랜 노력의 결실이다. 둘째, 산학협력이 꼭 기업체뿐 아니라 시와 도 같은 정부단체와도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이다. 학문적 지식이 대학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즉 지역중심 봉사정신에 투철한 우리대학 교육의 노력의 결과이다. 셋째, 3년간 24억을 지원 받아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의 실습의 기회 확대와 취업의 문을 여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익산 마동시립도서관의 민간수탁기관으로의 선정은 시작에 불과하다. 익산 마동시립도서관 수탁기관 선정에 계기로 앞으로 수많은 전북지역의 시립도서관 수탁운영에 우리대학 문헌정보학과가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축하와 격려를 함께 보내며 다른 전공에서도 이와 같은 노력의 결실이 나타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21세기 아는 것만큼 보인다 / 대학의 유산 <국역 여지도서>



국학고전번역 · 한국학 세계화 선두주자로 우뚝 호남·제주 문집번역, 30년동안 100억원 지원받아



변주승 교수
(역사문화콘텐츠전공)



■ 조선왕조실록 국역사업의 뒤를 잇는 쾌거

<여지도서(輿地圖書)>는 1757년(영조 33)부터 1765년(영조 41) 사이에 편찬된 조선 팔도의 전국지리지로서 채색 지도가 포함된 필사본으로, 원본은 한국 교회사 연구소에 보관되어 있으며, 1973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영인본을 발행하였다. 영인본 <여지도서>에는 군현(郡縣) 읍지 295개, 영지(營誌) 17개, 진지(鎭誌) 1개 등 모두 313개의 지리지로 구성된 <여지도서>에 경기도·경상도·전라도·충청도 지역 일부 누락된 40개 고을을 덧붙여 총 353개 고을의 지리지 있다.

<여지도서>는 각 고을별로 해당 고을의 채색 지도를 맨 앞에 실고, 도로망, 견지연혁(建置沿革), 고을 이름, 형승, 성곽, 관직, 산천, 성씨, 풍속, 궁실(宮室), 학교, 사당, 관공서, 제언, 창고, 특산물, 역원, 목장, 요새, 봉수, 누정(樓亭), 사찰, 고적, 군부대, 명관, 충신, 효자, 열녀, 제영(題詠), 발, 논, 진상품, 각종 세금 명목, 관리 녹봉, 군사 숫자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또한 객사(客舍), 성곽, 정자, 누각 등에 걸린 기문(記文)과 한시(漢詩) 등도 망라되어 있다.

이처럼 여지도서는 조선전기의 인문지리를 종합 정리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을 증보한 인문지리지로서, 조선 후기 지역사 연구는 물론이요 조선 후기 역사연구에 필수적인 자료이다.

■ 8년에 걸친 대 장정,

거칠고, <여지도서>가 고전국역 전문 국학기관이 아닌 지방의 한 대학, 전주대학교에서 완결될 수 있었던 것은 2002년부터 시작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 지원사업의 노력과 전주대학교 고전번역

연구팀의 끝없는 노력의 결실이다.

2002년 5월에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공모한 '기초학문육성 인문사회분야'의 '국학고전' 부문에 '여지도서(輿地圖書) 번역 및 색인' 과제(연구책임자: 변주승 전주대 언어문화학부 역사문화콘텐츠전공 교수)로 응모해, 다단계 심사를 거쳐 지원 과제로 최종 선정되었다. 연구기간은 2002년 8월 1일부터 2004년 7월 31일까지 2년이며, 총 연구비는 약 4억 4천만 원이다. 번역 연구팀은 2003년 9월 1차년도 연구 성과를 심사한 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최우수연구과제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를 지원받기도 하였다.

2004년 7월에 사업 기간이 종료된 뒤, 연구팀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출판 적격 판정을 받았고, 이후 연구팀은 번역 원고의 교정·교열 작업을 계속해 왔다. 2007년 12월에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는 <국역 여지도서> 출판비용으로 3억 3천만원을 보조하여 <여지도서>를 출판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2008년 6월에 전주대에서 주관한 공개 입찰 결과, 전라북도 전주에 자리한 디자인흐름 출판사가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디자인흐름 출판사에서 3억여 원을 대응 투자하여 50권 1000세트를 출판하기에 이르렀다.

■ 10여년의 세월을 국학고전 번역에 몰입한 연구자들



번역팀의 세미나 모습
(전북 원주군 비봉면 내월리 사)한국고전문화연구원

<여지도서> 번역 연구팀은 연구책임자(변주승, 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전공 교수)를 중심으로 김우철(한중대), 이철성(건양대), 서종태

(전주대), 문용식(순천향대) 등 4명의 공동연구원과, 김진소(전주교호남교회사연구소장), 이상식(한국고전문화연구원) 등 전임연구원 2명, 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와 대학원의 연구보조원 그리고 자문위원 및 평가위원 등 약 20명의 인원이 참여하였다.

평균 연령 40대 초반의 연구자들 중심으로 한학(漢學)이 아닌 한국사 특히 정치사, 경제사, 사회사, 사상사 등 조선후기의 다양한 전공자들이 번역에 참여하였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번역 연구팀은 개별 번역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번역 수준의 질적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는 한편, 모든 연구자들이 전라북도 원주군 비봉면 내월리 천호동 한국고전문화연구원에서 한 달에 한번 간격으로 3박 4일씩 번역 세미나를 진행해왔다.

호남의 대표적인 한학자인 고(故) 산암(汕巖) 변시연 선생님과 대전의 야당 이성우 선생님, 충남대 한문학과 이향배 교수 등으로부터 한시와 기문, 상량문 등 어려운 한문을 자문 받았다. 또한 평생을 한국천주교회사 연구에 헌신했던 호남천주교회사연구소 소장 김진소 신부는 연구팀에게 10년 세월 동안 천호동에 공간을 마련하여 숙식을 제공하는 한편, 연구팀의 번역 작업을 독려했다.

■ 조선시대 인문콘텐츠의 총 집합

국역 <여지도서>는 번역 본문만 200자 원고지 6만 매에 달하고, 책자 50권에 달하는 큰 규모다. <여지도서> 번역본의 출판은 조선 후기 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지역사·항토사 연구 기반을 한 단계 진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각종 기문(記文)과 한시(漢詩)의 번역은 국문학 연구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며, 특산물·진상품 등의 목록 정리는 관련 지역 특산물의 개발에, 충신·효자·열녀에 관한 번역은 청소년의 교육에 기여할 것이다. 다시 말해 역사학은 물론이고 국문학 등 인접 학문, 항토사 연구와 문화 관광사업, 청소년 교육 등에 미칠 효과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생각된다.

<여지도서> 번역의 주요 성과 가운데 하나는 고지도의 채색 가공 작업과 지명의 한글 번역이다. 흑백으로 된 여지도서 영인본의 지도 353개를 컬러로 채색하고, 지도에 실린 한자를 한글로 옮겨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여지도서>의 모든 항목들은 문화콘텐츠로서 정보화가 가능하다. 국역을 통해서 구축 가능한 정보콘텐츠는 인명정보, 지명정보, 특산물 정보, 지리정보, 조선시대 공공기관DB, 조선시대 지방 성씨DB, 조선시대 성(城)DB, 누정정보, 한시DB 등 가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하다. 특히 북한 지역에 대한 조선시대 종합 지리지 정보는 향후 통일을 대비한 정보망 구축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 국학고전 분야 특성화를 통해, 지방 인력양성과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키운다.

<여지도서> 출판을 통해 국학고전 분야의 중심에 자리하게 된 전주대학교는 국학고전 전문 인력을 양성 체제를 갖추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전주대학교는 '여지도서 번역 및 색인' 과제에 이어서, 2004년에는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 '추안급국안(推案及鞠案) 번역 및 역주' 과제(연구책임자: 변주승 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전공 교수)의 수행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추안급국안 번역 및 역주' 과제는 연구기간 3년(2004-2007)에 총 연구비 10억 5천만 원이 투입된 대형 사업이다. 조선시대 심문기록인 추안급국안은 200자 원고 12만 매 분량의 번역을 마치고, 2012년에 '전주대학교 고전국역총서2(100권)'로 출판될 예정이다. 2010년에는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주관하는 협동번역 사업에 응모하여 전주대학교 한국고전번역연구소가 '호남권 고전번역거점연구소'로 선정되었다. 한국고전번역연구소는 향후 30년 동안 100여 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호남과 제주 지역의 문집을 번역 출판할 예정이다.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 전공은 학부·석사·박사 과정을 연계하여 고전국역 전문 과정을 개설했으며, 현재는 석사·박사 과정에 약 20명의 젊은 연구자들이 국학 분야의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여지도서>와 <추안급국안> 번역 과정에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하여,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연구자의 길에 들어서 학생들이다.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 전공과 한국고전번역연구소는 국학고전 번역과 문화콘텐츠 개발을 통한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과 한국학 세계화의 선두주자로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전주대학교 한국고전번역연구소가 '호남권 고전번역거점연구소'로 선정되었다. 한국고전번역연구소는 향후 30년 동안 100여 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호남과 제주 지역의 문집을 번역 출판할 예정이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중부대 총장으로 취임한
임동오 동문(94. 경영학과박사)을 만나다.**

“미래는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 호 만나고 싶은 사람은 1995년 2월 우리대 학 대학원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2011. 03. 02 “신개념의 젊은 대학”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중부대학의 제6대 총장으로 취임한 임동오 동문을 만났다

- 2011년 2월까지 2천5백여 개의 사립 학교(대학포함)의 시설과 신설, 이전 등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이사장의 임무를 성공리에 마치고 2011년 3월 2일 중부권의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중부대학의 총장으로 취임하심을 전주대학교 5만여 동문을 대신하여 축하드립니다. 총장이 되기 위한 비전을 언제부터 가지고 계셨으며 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요?
오래전부터 그런 개인적인 비전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대학교육 또는 대학경영관련 책자·관련기사·선진국 벤치마킹 등 나름대로 개인적인 준비를 해 왔다. 특히 사립대학의 경영 관련 자료들을 관리, 재정지원을 하는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 할 때 교과부, 국회, 사립대학법인협의회 등 훌륭한 분들과 의견을 교류했다.

- 총장님께서 1994년 “우리나라 호텔기업의 營業危險이 資本構造의 決定에 미치는 效果” 라는 제하의 박사학위논문을 최원철교수의 지도로 경영학과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당시의 전주대학교 재학시절을 이야기 해주신다면?
기독교 정신 중심 대학원으로서 모든 교수님께서 진지하게 강의와 지도를 열심히 해주셨다. 그때만 해도 조금 외곽지역이라 교통이 문제였으나 큰 어려움은 없었다. 전주대학교 대학원을 선택해서 좋은 배움과

인연들이 되었다.
- 최근 전주대학교는 이남식총장님의 취임 이래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며 호남권의 명문사학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총장님께서 전주대학교를 다니셨던 1994년과 현재의 전주대학교의 상황을 비교하여 주신다면?
그렇다. 그때의 대학과는 현격하게 내·외실 면에서 발전상이 다르게 크게 많이 발전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이남식 총장님의 탁월한 아이디어와 성실하신 대학경영과 활동이 전주대학교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공적인 인연도 있지만 평소에 그 능력과 인격을 존경하고 있었고 이제 총장후발자로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하며 전주대학교 발전이 그분을 통해 더욱 더 전진하길 바란다.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이사장의 임무를 성공리에 마치셨는데 이사장으로 계실 때 어떤 교육철학으로 이사장직을 수행하셨는지요?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역할은 앞서 언급된 것 같고 이사장으로서 직책수행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다.
지원예산의 확대, 사립대학선진화(구조조정)실무적 지원 그에 따른 공인회계사들의 채용, 정원확대승인, 해외 국에 국내사립대학이 진출할 때 시설지원 기초마련, 대학컨

설팅기관으로 지정, 법인수익용 재산에 대한 지원, 대학기부금활성화 운동시작과 국회에서의 토론회 개최, 사립대학 회계시스템의 복식회계 도입적용 등등. 많은 업무확장이 됐고, 이는 국회, 교과부, 기획재정부 등의 협조에 된 점을 보람으로 생각하며 앞으로의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바램은 국가예산이 지금보다 훨씬 증가되고 저이용화 되길 바란다.

- 총장으로 취임하시면서 중부대학을 이끄시기 위한 비전은 어떤 것인지요.
오늘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자유, 진리, 창조」의 교육목표를 갖고 이씨조선을 새운 태조 이성계의 탯자리봉이 있는 이곳 태봉 골에서 30여 년 전에 중부지역의 고등교육을 책임질 운지로 세운 중부대학교의 제6대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크나큰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느낀다.
지금의 세계는 국경도 이념을 넘어서 종교들이 혼재된 사회가 되었다. 나라의 생존을 위해서는 오직 경제, 부의 창출만이 필요하며 한 나라의 자존심은 애국심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가 경제가 되었다.

이 경제를 번성시킬 무기는 오직 교육밖에 없다. 과거의 화려한 역사도, 생김새도 우수한 미모의 나라 국민도 가난하면 많은 모멸감속에 타국에서 돈벌이를 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저희 대학교는 교육목표 실현사항으로 첫째, 교육중심 대학으로써 졸업과 동시에 반드시 취업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현실감 있게 운영하는 대학, 둘째, 전공분야 또는 희망분야의 자격증들을 소지할 「자격증 인증제도」를 실천하는 대학, 셋째, 과거 100년간의 변화가 미래 5년간의 변화와 같은 시대에 IT, BT, 문화CT, MT, CCT, HT, ET 등등의 무제한 발전 여지가 많은 분야를 리드할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 넷째, 가정과

사회 국가에 감사하며 봉사의무를 갖도록 하는 대학교육, 다섯째, 선진화 평생교육시스템을 운영하는 대학이 되는 교육이 되도록 할 것이다.

- 총장님께서 세우신 이러한 목표가 임기동안 꼭 달성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좋게 말해주니 고맙다. 교육과정의 변동 적응력 지향, 취업전담 교수제의 확대, 외부 전문최고경력 인사활용교육방법, 국제적 적응력을 키우기 위한 해외대학과의 교류 외국과의 공동강의 학위학점 취득제도, 학내 벤처기업 중에서도 특히 인삼 관련 연구와 제품 품질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 등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과학대학, 경찰경호대학, 관광보건대학, 공과대학, 예술체육대학의 1만여 재학생과 38개 석사대학원, 8개 박사과정 등 1천5백 명이 우수한 인재가 되도록 하는 교육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 총장님께서 우리 전주대학교 학우를 비롯해 오늘날 대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미래는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황금보다도 귀중한 시간에 다른 사람과 비생산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는 일로 생각과 시간을 허비할 틈이 없는 것이다.
케네디 대통령의 말을 변인 인용하면서 인사말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와 학교가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지 말고 내 자신이 국가, 사회, 가정, 학교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자.」 라는 말을 하고 싶다.

〈평생교육원〉

지역사회에 봉사·나눔 실천하는 “평생교육 핵심기관”



지식과 정보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산이며 또한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시대를 맞으며 과거 어느때 보다 '학습하는 사회(learning society)' 열풍이 전 세대에 걸쳐 일어나고 있다. 평생 학습사회는 지역주민이 학습을 즐거움으로 알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자연스럽게 그것을 삶의 과정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사회를 말하며, 전주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은 지역 평생교육 핵심기관으로 이러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고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급하는데 주요한 목표를 두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전주대학교 평생교육원은 대학의 우수한 인적·물적 교육자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문화교양·건강관리·음악·미술·한국전통·상담아카데미, 대학평생교육협의회 자격증과정, 학점은행제(부동산학,사회복지학,교양), JJ골프아카데미, JJFC(전주대유소년축구클럽), 주말아카데미 등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지역사회의 전 세대가 학습할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전주대학교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평생교육원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일반 시민 뿐 아니라 전주대학교 재학생 누구나 수강이 가능하며, 관련 학부생을 중심으로 자기개발 및 취업시 도움이 되는 자격증 과정을 중심으로 재학생의 수강이 계속되고 있다. 관련 자격증 과정은 논술지도사, 독서지도사, 방과후아동지도사, 미술심리지도사, 어린이독서지도사, 신문활용교육지도사, 글짓기지도사 등이 있으며 매년 150여 명이 수강 후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다.

김상기실장은 "다양한 평생교육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평생학습 과정 개발을 통해 '대학 구성원뿐 아니라 전주시민과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전주대학교'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권희망, 문영균 기자

전유회

“유도를 통해 ‘예의’ 라는 인성을 갖추다.”



전유회는 올해로 12년째를 맞았다. 유도선수였던 1기 선배는 “유도라는 운동을 통해 ‘예의’ 라는 인성을 갖추고 심신을 단련하자”는 모토로 동아리를 만들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운동을 하고 공식적인 운동시간이 끝나면 공학2관과 전주대 사대 부설 고등학교 사이에 있는 스타집에서 운동을 더 할 수 있다.

또한 6월말에 있을 춘계 전북대학 동아리 대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10월말 추계 전북 대학 동아리 대회까지 앞두고 있어 운동에 전념하고 있다. 회장 고필준(운동처방과 2)은 “전유회는 운동을 배우면서 선후배간의 예의와 관계를 중요시한다. 운동동아리 하면 여학우들이 많이 꺼리는 분위기 이지만 전유회는 여학우들이 더 많이 운동을 하고 있다.” 고 말했다.

/전유정 기자

- 위치: 학생회관 521호
- 연락처: 고필준 회장 010-9924-4755

스도쿠 풀어보기

777호

4		7	8	3	6			5
	9			1				7
			7					
7			3		9	5		4
9								2
1		8	4		7			6
5					1			
						4	2	
2			6	7	8	3		1

★ 규칙 ★

1. 아홉 개의 3×3 칸에 숫자가 1부터 9까지 하나씩만 들어가야 한다.
2. 아홉 가로줄에 숫자가 1부터 9까지 하나씩만 들어야 한다.
3. 아홉 세로줄에 숫자가 1부터 9까지 하나씩만 들어야 한다.

* 정답자에게는 선착순(전공별 1명)으로 6명을 선발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학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보내실곳 : jjnews@jj.ac.kr (이름, 전공, 학년, 연락처를 기재해주름, 전공, 학년, 연락처를 기재해주세요)

연락처: 권희망기자(010-3424-0804)



게릴라 인터뷰

게릴라 인터뷰는 다양한 학생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함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코너입니다.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편집자주

Q. 대학축제,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 축제는 우리 학생들의 축제인데 연예인 보러 오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어 너무 아쉽다. 우리 학생들이 메인이 되는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김국인(상담학 2)
- 아나바다 운동 같은 자취생들을 위하여 집에서 쓰지 않는 조리기구, 생활용품 같은 것 사고 팔아 불우이웃 돕기 하는 프로그램 만들었으면 좋겠다. 김희주(전통음식문화전공 3)
- 음주를 과하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고, 어느 순간부터 낯설, 술판 등 이런 단어들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러한 인식들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김형신(대체건강관리학부 1)
- 작은 이벤트나 즐길거리가 많았으면 좋겠고 먹고 마시고 놀다 죽자는 축제가 아니라 오월제가 시작하게 된 계기와 의미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임민주(사회복지 2)
- 대학축제가 즐기다가 끝나는 것이 아닌 순간적인 응집력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현안의 문제점인 등록금이나 LH 본사 문제 등을 촛불이나 풍선으로 시위하기도 하는 학생운동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경민(상담학과 3)
- 대학축제가 너무 공연 위주로 되어있어서 공연, 주말 말고도 대학생이나 고등학생 등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최혁규(사회복지 2)
- 각각의 전공학과에서 다른 학생들이 알 수 있게 홍보하며 그 과에 대해 알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익명(토목건축학 4)

※ 기타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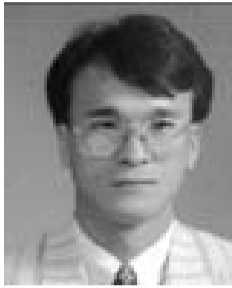
- 다른 외부인이 많이 찾아와 즐기는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고 다른 곳에서 시도하지 않은 창의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장해웅(수학교육학 1)
- 즐기는 것은 좋지만 학생이라는 신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익명(물리치료학 4)
- 우리 학교 학생들이 어울릴 수 있을만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익명(가정교육학 2)
- 수업을 안함으로써 축제를 더욱 많이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오전에도 축제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너무 밤에 음주만 하는 축제인 것 같다. 박장미(사회복지 4)

* 소개를 원하시는 동아리와 게릴라 인터뷰 질문이 떠오른 분은 전주대신문사 클럽 (<http://jjnews.cyworld.com>)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신앙 훈련의 중요성



김갑룡 교수
(경영학부)

대한민국의 남자들이라면 모두가 국방의무를 완수하기 위해 군에 입대하여야 한다. 요즈음은 여성들의 군 입대 비율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입대하면 자신이 복무기간동안 근무할 부대로 바로 배치되지 않고, 훈련전문 부대에서 먼저 기본 군사훈련을 받게 된다. 군인으로서의 기본자세와 개인 무기를 다루는 방법, 기초 전술동

작 등을 익히는 것으로, 이는 훗날 각 실전부대에 배치 받아 군복무를 하거나, 적과의 교전 시에 전투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기본기를 갖추는 과정이다. 대학생 생활에서의 학업과정도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하여 각자가 각 영역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한 준비 혹은 훈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입대하여 훈련소 시절을 마치면 이러한 훈련이 더 이상 없는 것이 아니라, 각 부대에 배치를 받은 후에도 더 전문적이고 강도 높은 훈련을 정기적으로 받게 된다. 이는 군인으로서의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회에 진출하여서도 대학에서 배운 학업만으로 더 이상의 공부나 훈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더 심층적인 공부와 현장훈련은 계속 된다.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훈련소 시절의 기본 훈련과정, 그

리고 대학시절의 기본 학업과정에서 충실한 훈련과 학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나중의 시기에 받을 심층적인 교육이나 훈련을 그리고 실제 업무현장에서의 일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음을 물론, 직면하는 여러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도 없고, 결국 그 조직이나 사회에서 도태되기가 쉽다는 점이다.

이러한 간단한 원리는 신앙생활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다. 대학시절의 신앙생활(동아리를 통해서 이든 교회를 통해서 이든)은 어찌 보면 신앙적 분위기 속에서만 하는 신앙생활이므로, 온상에서 이루어지는 신앙훈련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여서는 꼭 신앙인들 사이에서만 생활하지 않고 그 반대의 분위기 속에서도 생활해야 할 경우가 매우 많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학시절의 철저한 신앙훈련이 없이는 졸업 후 실전 사회생활에

서 여러 반신양적 문화와 유혹에 직면하여 별 힘도 못써보고 무기력하게 신앙적 판단이 흐려지는 안타까운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실패의 쓰라림을 본 필자도 여지없이 경험하였다. 이렇기 때문에 기본 훈련과정인 대학시절의 신앙훈련이 잘 유지되고 반복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각자가 신앙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성숙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 대학 내만 하더라도 많은 크리스천 학생들이 각자 학문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훈련받으며 준비하고 있을 줄로 안다. 한 가지 부탁을 한다면, 철저히 준비하고 훈련받으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만이, 졸업 후 실제 사회에 진출하였을 때, 대학시절 연마했던 그 학업으로 그리고 훈련받았던 그 복음으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갖추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면 여러 분들의 삶은 주님안에서 영광이 되며 승리하는 삶이 될 것이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말은 사람의 마음을 찌른다. 입이 우유 기름보다 미끄럽고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그가 하는 말은 뾰족한 칼(시55:21)과 같고 찌르는 칼(잠12:18)과 같아서 듣는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 날카로운 칼과 같은 혀를 가지고 악을 토하며 '누가 들으리요?' 함부로 말한다.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 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시59:7).

▼ 세상에는 칼로 찌름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양약과 같은 혀를 가진 지혜로운 사람도 있다(잠12:18).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약과 같은 혀를 가지고 있다. 입을 슬기롭게 하여 입술에 지식을 더한다. 지식이 더해진 지혜로운 사람의 입술에서는 선한 말이 나온다. 선한 말은 마음을 찌르는 악한 말과는 달리 사람들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준다. 힘든 마음, 잘못된 마음을 위로하고 지지하며 격려하여 회복시켜 주고 변화하게 한다. 남아프리카 미개부족 가운데 한 종족인 바벰바족은 전 세계에서 가장 범죄율이 낮다. 이 부족들은 죄를 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마을 한복판 광장에 세운다. 그리고 온 마을 사람들이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그의 곁에 둘러서서 한 사람씩 돌아가며 메시지를 전한다. 그의 잘못된 행위를 논리적으로 따지고 책망하고 꾸짖고 힐난하는 말이 아니다. 그동안 그가 살아오면서 보여 준 좋은 일, 착한 일과 그의 좋은 점, 뛰어난 부분을 표현하며 진정으로 그를 지지하고 위로하며 격려한다. 마을 사람들이 한 바퀴 돌기 시작하면 어느새 이 사람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대성통곡하기 시작한다. 그때 마을 사람들은 그를 껴안고 진심으로 그의 잘못을 용서한다. 이후 그 사람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변한다. 모든 사람을 섬기며 모든 일을 앞장서서 행하며 모든 것을 나누는 '사랑의 사람', '감사와 기쁨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진다.

▼ 이렇듯 선한 말은 마치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과 같아서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같이 듣는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잠 25:25). 지혜로운 사람의 슬기로운 입술에서 나오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이 달아서 좋은 약이 된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잠16:23, 24). 아멘.

장선철처장(선교지원처)



진리의 샘

“붙잡아야 할 비전” (요한 21:15-19)



강순홍목사
(전주희년교회)

1965년 7월에 영국 웨일스의 시골에서 태어나 엑세터 라는 대학 불문과를 졸업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나이 25세가 되던 해에 두 가지 일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일이고 또 하나는 임시직으로 있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영어강사를 하기위해서 포르투갈로 떠납니다. 거기서 한 저널리스트 기자를 만나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합니다. 다음해 제시카 라는 이름을 가진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결혼생활은 3년이 못되어서 파경에 빠집니다. 이 여인은 다시 조국인 영국 에든버러로 돌아와서 단 칸짜리의 아파트에 전세를 얻어서 정착하게 됩니다. 때로는 딸에 대한 보육비가 없어서 아기에게 맹물을 먹여야 하는 비참한 생활을 합니다.

이러한 지경에서도 이 여인은 작가의 꿈을 버리지 않았습다.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 가지고 공원을 돌아다니던 어느 날 갑자기 이 여인의 머리속에서 이야기 하나가 펼쳐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고물 타지기를 끌어내어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1996년 6월 원고를 들고 출판사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출판사마다 보기 좋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출판사에서 그 이야기가 출판되었습니다. 그것이

순식간에 영국을 넘어 유럽과 미국, 등 전 세계에 베스트셀러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해리 포터의 신드림>을 일으키고 있는 마법사 이야기의 주인공인 조앤 롤링이라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평범했던 여인이 상상의 세계와, 꿈, 그리고 비전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 자체가 곧 비전을 통한 새로운 인생드라마를 써가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재기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세 번 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갔던 그는 어떤 의미에서는 실패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후념하고 독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요 21:3)

만약 이렇게 그의 인생이 마쳤더라면 그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은 베드로의 좌절과 절망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재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제기할 수가 있었을까요?

첫째,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세상이 나를 버려도, 믿었던 사람이 나를 버려도, 나의 주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재기할 수 있다고 믿습다. 그 사랑을 다시 확인해 보십시

요. 가슴에 느껴 보십시요. 그러면 우리는 재기할 수 있다고 믿습다.

둘째, 주님의 기대를 확인하십시오.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한번 기대를 버린 제자, 배신하고 떠나간 제자에게 더 이상 기대를 거는 사람은 없습다. 그러나 주님은 다르셨습니다. 제자 베드로에게 찾아와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변함없이 기대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주님은 실패했다고 우리를 버리시는 주님이 아닙니다. 더 높은 계획을, 더 높은 소명을, 더 높은 비전을 준비하셨다면 주님 앞에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를 확인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십시오. 우리의 꿈과 비전이 회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의 보람찬 미래가 저절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21:19절을 보시면 베드로에게 마지막 중요한 명령이 하나 주어집니다. "나를 따르라!"고 선언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처음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인생을 끝내는 순간, 그 마지막 결산이 영광이고 승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주대학교 청년들이여, 베드로가 붙잡은 새로운 비전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 함께 꿈꾸는 미래... 종강 감사 교직원예배

선교보고, 교수선교회 장학증 전달

6월 1일 오전 11시에 대학교 회에서 교수, 학생, 직원이 한 자리에 모여 한 학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2011년 1학기 종강 교직원 감사예배가 열렸다.

이번 예배에는 특별히 김동건 목사(전발협 고문, 중부교회 원로목사)를 초청하여 '나의 힘이 신 여호와여'란 주제로 은혜의 말씀을 전하며, 크로스선교합창단에서 파워풀한 찬양으로 섬겼다.

또한 장선철 선교지원처장의 1학기 선교보고와 아울러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되는 교

수선교회(회장 유평수) 장학증서 수여식이 진행되었다.

교수선교회는 매 학기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는

데 이번학기에는 김재권(경배와 찬양 4) 학생에게 50만원, 조연우(기계자동차 1) 외 5명에게는 각각 30만원을 지급한다.



이번 종강감사 예배를 통해 한 학기를 마무리하며 서로를 축복하고 미래를 함께 꿈꾸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 기대한다.

부흥채플과 열린채플로 학생채플 종강예배

6월 7일 학생회관 대강당에서

선교지원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생채플이 6월 7일에 학생회관 대강당에서 종강감사예배로 부흥채플과 열린채플 연합으로 진행된다.

이번 종강감사예배는 2011년 1학기를 은혜가운데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학생들의 신앙 성장과 영성훈련센터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신 것에 감사드리는 시간이 될 것이다.

2011년 2학기 채플은 9월 6일에 개강하며, 부흥채플은 JJ아트홀, 열린



채플은 대강당에서 각각 개강예배가 드러진다.

기독교 고등학교 채플지원

선교지원처(처장 장선철)에서는 기독교 고등학교 채플지원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영생고, 태성고(용인), 진경여고(익산), 정명여고(목포), 성일고(익산)에서 채플을

인도하였으며, 지난 18일에는 김승수 목사(전주대학교 교목)와 경배와찬양학과 찬양팀이 전주사대부고에서 채플을 인도하였다.

기독교고등학교 채플지원을

통해 전주대학교가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이 있는 하나님의 학교임을 전하고 있으며, 채플을 통하여 만나게 되는 학생들에게 전 주대를 알리는 중요한 장이 되고 있다.

대학교회 여전도회 봉사활동, 10년 이상 지속

전주대학교 대학교회 여전도회는 지난 5월 18일 '이레복지원'과 '천사의집'의 거동이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노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다.

여전도회 회원들은 봉사하는 날이 되면 아침부터 함께 모여 노인들을 위한 식사를 마련하여 섬긴다.

이 봉사는 벌써 10년 이상 지속되어 온 것으로 매월 셋째주

수요일에 진행되고 있다. 대학교회는 앞으로도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일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학생생활관 오픈하우스 두:드림(do:dream)

학생생활관(관장 장선철)은 5월 19일(목) 생활관 일대 및 학생회관, 노천극장에서 오픈하우스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오픈하우스는 스타타워와 학생회관 1층에서 생활관 시설 및 BCR(Best Clean Room)콘테스트 수상작을 갤러리 형태로 전시하였으며, 네일아트 체험행사, 주사위 굴리기를 통한 생필품 증정, 도서 나눔 캠페인, 생활관 투어 '글자를 찾아라' 등이 열렸다.

또한, 야간 행사로는 두:드림 가요제, 푸드 파이터 등이 열렸으며 솜사탕 증정, 먹거리 장터, 스타카페 등의 푸드 코너

도 학우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행사 말미에는 자전거 추첨을 진행하여 관생들의 뜨거운 환호 속에서 김용승 관생(스타타워B210/소방안전3)이 당첨의 영광을 누렸다.

제31대 관생자치위원회 대표 강성현(스타빌3302/경찰행정3)은 "많은 관생들이 참여해주셔서 성공리에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행사 준비로 고생한 자치회 임원들, 자리를 빛내준 모든 관생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다음 학기에도 많은 호응 바란다." 라고 소감을 전했다.

전국대학 생활관 관리자 협의회 세미나 참석

학생생활관에서는 5월 18~20일 제주도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11년도 상반기 전국 대학 생활관 관리자 협의회 세미나에 고정수실장과 김미경팀장이 참석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대학교 생활관 간

의 정보 교환 및 생활관 관리 운영의 연구·개발 방안 모색을 주제로 생활관 운영 관련 특강, 생활관 모범 사례 발표, 주제별 분임 토의, 대학 생활관 방문 및 문화 탐방으로 진행되었다.

† 선교동정 | 장선철 처장 특강

- 05. 23(월) 순창교육청
- 05. 24(화) 전주사대부고
- 05. 25(수) 정읍 중앙교회
- 05. 26(목) 남원교회, 부안교육청, 부안초등학교
- 05. 27(금) 남원교육청
- 05. 31(화) 전주 중부교회
- 06. 01(수) 대학교회

<< 대학교회 예배시간 >>

- 새벽예배 월~금 06:00
- 주일낮예배 주일 11:00
- 대학청년부 주일 13:30
- 수요일예배 수요일 19:00

2011년 여름방학, 2학기 학생생활관 관생 모집

2011학년도 여름방학 및 2학기 학생생활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이용을 희망하는 학생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 생활관

생활관명	스타타워	스타빌	스타홈
침실구성	1인실(장), 1인실, 2인실, 4인실	2인실	2인실
시설수준	화장실 및 샤워실(개별)	화장실 및 샤워실 (공동)	
기타	식당,관외점,빨래방,카메라,공통취사실,휴게실,세탁실	식당, 세탁실, 독서실,공동취사실, 휴게실	세탁실, 공동취사실, 휴게실

■ 모집단위 및 기간

- ① 여름방학 입사 : 3주(2011년 6월 20일 ~ 2011년 7월 8일) · 10주(2011년 6월 20일 ~ 2011년 8월 26일)
- ② 2학기 입사 : 16주(2011년 8월 29일 ~ 2011년 12월 16일)
- ③ 반기(2학기+겨울방학) 입사 : 26주(2011년 8월 29일 ~ 2012년 2월 24일)

■ 모집일정

구분	여름방학	2학기
입사 신청	2011.5.30(월)~6.3(금)	2011.6.7(화)~6.17(금)
입사 대상자 선정발표	2011.6.13(월)	2011.7.25(월)
생활관비 납부	2011.6.13(월)~6.17(금)	2011.7.25(월)~7.29(금)

■ 입사신청방법 | 전주대학교 학생생활관 홈페이지(http://startower.jj.ac.kr) 회원 가입 → 입사신청

스타타워 운영사무실 TEL. 063-239-5500~5501 FAX. 063-239-5506

■ 생활관비 납부 1) 납부방법 : 무통장 입금 2) 입금계좌 : 광주은행 580-107-000294 스타타워(유)

※ 주의 사항

- 등록기간 내에 생활관비(식비포함)를 미납할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
- 미등록 결원 발생 시 대기신청자에 한하여 선정
- 입금 시에는 해당 입사자의 성명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타인 입금 시 홈페이지 상담신청에 글 작성),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등록 취소될 수 있음
- 여름방학 룸메이트는 랜덤 배정될 예정이며 2011-2학기 룸메이트 신청은 생활관비 납부 후 룸메이트 신청 기간 내에 홈페이지 상담신청에 글 작성

■ 생활관비

구분	스타타워			스타빌	스타홈
	1인실	2인실	4인실	2인실	2인실
여름방학(3주)	352,500	240,000	187,500	172,500	161,250
여름방학(10주)	1,105,000	730,000	555,000	505,000	467,500
2학기(16주)	2,118,000	1,518,000	1,238,000	1,158,000	1,098,000
반기(26주)	2,763,000	1,938,000	1,553,000	1,443,000	1,360,500

비고. 1. 상기에서 반기 입사는 4주분의 생활관비가 합인된 금액임(26주 → 22주 금액)

2. 식비는 1일 2식(1회 2,000원)이며 공휴일과 일요일은 제외되며 방학기간에는 별도로 이용자를 파악하여 운영할 예정임

3. 생활관비에는 식비와 입사 시 짐기비용 파손에 대한 시설보증금(3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설보증금은 퇴사 시 정산 후 환불할 예정임

■ 특전 : 학생생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소정의 수강료를 지급 후 참여 가능.

- 1) 여름방학 : 영어캠프
- 2) 학기 : 취업 및 자격증관련

※주의사항 : 학생생활관에서 정한 규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퇴실 조치를 할 수 있음.

스타빌/스타홈 운영사무실 TEL. 063-239-6100~6101 FAX. 063-239-6104



每学期举办一次的英语模拟面试是酒店经营学科的创举

酒店经营学科进路探索时间里的英语面试

— 为适应基本层面的英语面试训练 —

酒店经营学科在本月4日的进路探索时间上进行了模拟英语面试。面试在位于地域革新馆105号的酒店实训室进行。由5名酒店经营学教授以2~4年級的共130名学生为对象，进行了5:1的针对性演练。

此次模拟英语面试是为了掌握学生们基本英语会话的熟练程度，

并将面试结果作为学生国内外就业推荐时的参考资料。尤其是此次面试正处于新加坡某著名品牌酒店来我校面试聘用职员前夕，在5月末新加坡酒店方面人事部长来韩访问之前选拔英语面试者也成为此次模拟面试的重要目的之一。面试时间

为每年級40分钟。共有2年級50名、3年級40名、4年級40名共130

名学生参加了此次面试。参加模拟面试的郭泰同学说，“英语提问、英语回答，只有在这种严肃的气氛里才能感受到实战般的紧张。通过此次面试，纠正自己欠缺的方面以为今后的面试做好准备”。每个学期都在进路探索时间里进行一次英语模拟面试可以说是我校酒店经营学科的独创之举！ /权善姬 记者

汉文教育学科举办 成年礼仪式

—以成年人的自信心和责任感树立正确的价值观—



汉文教育科(学科长 苏管成)的30名学生(男女各15名)于本月16日上午10时，在全州乡校参加了由全州市和成均馆青年会、道全北本部主办的“第39届成年礼”活动。

受邀参加本次活动的120名新满20岁的学生，在仪式上再现了加冠及笄的成年礼场景。活动意在通过这种仪式唤醒学生们的成年人和社会人的责任感与义务。

成年礼仪式上，男子加冠，女子及笄。通过这种形式，纪念他们由不成熟走向成熟的过渡，同时也表明他们经过漫长的文化教育过程后，逐渐走向成熟，脱离了亲人的养育、监护，担当起了所在集团和社会所赋予的权利和义务。

参加成年礼的朴晋(汉文教育2)同学说，“通过参加成年礼仪式，我感觉自己融入社会的步伐更加快了”。 /权希望 记者

观光经营系国内 文化资源实地考察

—了解奶酪历史，体验奶酪制作—

观光经营专业(主任教授 柳仁平)3年級的20余名学生于本月11日在宋广仁教授‘绿色观光论’课程的安排下来到任实郡奶酪村进行实地考察。

观光经营专业的学生们品尝了用当地生产的奶酪制成的奶酪披萨，并用准备好的材料直接操作，亲身体会了奶酪的弹性特质，参与了奶酪的制作过程。乘坐着中耕机，带着披萨饼前往体验场的同学们，在准备好的披萨饼上涂上各种奶酪和蔬菜配料并即时烘烤制作各种口味样式的披萨。同学们在销售场内参



在奶酪村中用奶酪制作披萨，亲身体会奶酪文化的观光经营学科的同学

观了各种利用奶酪制成的酸奶、奶酪曲奇等产品。并前往奶酪谷参观奶酪的创始人简介、奶酪生产过程以及各国的奶酪种类等。

科代表柳成恩同学说，“利用奶酪可以举办很多趣味性很高的活动，并可以通过现场体验的形式吸引男女老少的踊跃参加，我们以后

也会将更多的精力投入在这种寓教于乐的活动中”。 /权希望 记者

留学生篮球社团 绽放异彩

—分享运动激情，体验留学乐趣—

我校留学生篮球社团成立于今年3月24日，是外国人留学生会(会长 侯一飞)为丰富留学生的课余生活，增进相互间友谊而成立的社团组织。社团现有成员21名，现任会长张庆龙，事务策划王明亮。

社团成立仅两个月，就已经在全北地区的各类留学生篮球赛事中崭露头角，取得了不俗的成绩。外国人留学生会会长侯一飞同学表示，“学生会将推动成立更多的社团组织以丰富和服务大家的留学生活。希望广大留学生同学拿出热情，积极参与，共同编织我们难忘的留学记忆”。

人生感悟

向左走，向右走

望着窗外的那片绿，那么鲜活，那么灵动，犹如一个活脱脱的生命的跳动。不知为什么看到绿，总会让我下意识的想到生命。是呀，生命不就是一个潜在的过程吗？

可是，在这个说不长也不短的过程中总会要经历许许多多的历练或者抉择和人生考验。一探讨到

人生又是一个很深沉的话题，每个人对待自己的人生都会有不同的态度和看法。结果，可想而知，有的人一败涂地，有的人功成名就。除了外在的一些条件影响外，很大程度上依赖于自身的努力程度和内在潜质。

在人生的岔路口，到底该向哪走。当你心中没有目标的时候，你会发现哪里都不是自己的出路，大把的青春年华摆在我们手中，看到别人坐在高级办公楼里大展宏图

的时候，那叫一个眼馋，多想不久后的自己也会拥有同样的人生。想努力，想奋斗，想好好干一场，可是等某一刹那你清醒过来的时候，发现很多事被我们想象的过于简单。发现自己其实什么也没有：金钱、地位、荣誉、学识... 这一刻，我们恰恰忽略了一点。那就是自己。我们不知道自己能做什么，应该做什么，看见某某考取了公务员，也想试试，可书没看到一半就放弃了，并自我安慰，公务员得靠关系，自

己出身背门，放弃。看见某某考村官，在农村干得是风风火火，心头一热也试试，可还没迈开半步又放弃了。整日从别人的位置中寻找自己的位置，先不谈适合不适合自己，仅对价值取向就是一个误区。

所以要想成功，首先得给自己定位，找准自己的方向，自己能干什么，适合干什么，然后付诸于行动，并切记勿半途而废。成功并非一朝一夕之事，考验的就是人的耐力。如果此时的你正被失落所困

惑，如果此刻的你找不到自己的出路，如果此刻的你正被前途弄得一头雾水，如果此刻的你仍彷徨无措，你试着想一想你对自己了解多少，你有目标吗？你暗自想过自己到底想干什么吗？其实，向左走，还是向右走，真正起决定作用的还在于自己。

(郑彦超 金融大学院 1年級)

The Department of Food Service Industry was selected as a unique "Well-being Lab Business" in the Honam Region

Receiving support of one billion won for two years for distinguishing its coffee, wine and food coordination ability



Being selected as "Well-being Lab" we expect that by developing practical skills through differentiated education there will be fostered competitive Dining Service experts.

business was selected for possessing sites for practice, experts within the field and other services, such as being within a Metropolitan area, or the Chungcheong, Honam, and Yeongnam regions. Our university participated, having formed the consortium with Jeonju Vision University.

Professor Gye-hong Min said "The Department of Food Service Industry has an objective to expand the dining service market and create new job opportunities and also make a solid effort to educate coffee baristas, wine sommeliers, and food coordinators. In being selected as a project site, we'll do our best to foster great, competitive dining service experts with practical skills." Trainees for each course will be recruited from June 1st through June 20th. (Contact: Department of Food Industry lab ☎ 220-2980)

The Department of Food Service Industry (Head Gye-hong Min) was selected by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and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Institute as the one and only "Well-being Lab" (Director and Professor Gye-hong Min) in the Honam

Region and will be recipients of 10 billion won in financial support over the next two years.

A "Well-being Lab Business" educates coffee baristas, sommeliers, food coordinators, wedding planners, nail artists and others in the field. Also, each

10 Times More Students are Heading to the Library



The number of students using the library each day has grown 10

times, from 300 to 3,000 people due to its multiplex environment, with the "Convention Hall", "Information Correspondence", "Student Service Center", "Employment Support Center", "Food Court", and even athletic facilities. Fellow student, Eun-mi Gang (Alternative Health Care) said, "I like it because during my time between lectures, I can

comfortably use the reading room and I can spend my leisure time meaningfully in the Media Valley".

The Star Center has solved the inconvenience of using the rarely-used distant Central Library. Also, the new library will continue to attract more students by providing practical high-tech equipment.

President Nam-sik Lee's Appointment as Chairman of the World Future Society



On the 9th of May at 6 pm, President Nam-sik Lee was appointed as the second Chairman

of the World Future Society at its General Assembly held in Star Center's Onnuri Hall. Taking office after Yong-Gil Kim, the first president (Handong University President), the second Chairman Lee took over with a global futurist, Dr. Jerome Clayton Glenn, who's also the best student of futurist Herman Kahn. President Nam-sik Lee in his inaugural address commented,

"To respond to the upcoming future society, a prediction of the changes of the future are needed," and "by a swift approach to the rapidly changing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e fields of political science, economics, culture, the environment, informatization and other spheres, and taking on roles within future think tanks, we can find solutions and move forward."

Biblical Devotion

God's Advice to Cain

Brian Heldenbrand

Genesis 4:1-9, Adam lay with his wife Eve, and she became pregnant and gave birth to Cain. She said, "With the help of the LORD I have brought forth man." 2 Later she gave birth to his brother Abel. Now Abel kept flocks, and Cain worked the soil. 3 In the course of time Cain brought some of the fruits of the soil as an offering to the LORD. 4 But Abel brought fat portions from some of the firstborn of his flock. The LORD looked with favor on Abel and his offering, 5 but on Cain and his offering he did not look with favor. So Cain was very angry, and his face was downcast. 6 Then the LORD said to Cain, "Why are you angry? Why is your face downcast? 7 If you do what is right, will you not be accepted? But if you do not do what is right, sin is crouching at your door: it desires to have you, but you must master it." 8 Now Cain said to his brother Abel, "Let's go out to the field." And while they were in the field, Cain attacked his brother Abel and killed him. 9 Then the LORD said to Cain, "Where is your brother Abel?" "I don't know," he replied. "Am I my brother's keeper?"

expected more from Cain. Of course, Cain was bothered that God didn't see his offering as pleasing and became angry. Cain's anger was noticed by the Lord and the Lord spoke to him about his anger. The Lord asked him why he was angry and disappointed. The Lord told Cain that he would be accepted if he had prepared a proper offering; yet, when wrong is done, sin begins to take the upper hand in your life. The Lord warned Cain, "Sin is crouching at your door." The original Hebrew for this expression depicts a picture of an animal crouching down, ready to devour its prey.

Unfortunately, Cain didn't heed the Lord's advice to master the anger within him. The Lord told him that the sin was ready to take control of him and it did. Cain took his anger out on his own brother who had nothing to do with Cain's unsatisfactory offering to the Lord. Abel didn't sabotage or attempt to look better than his brother. Abel didn't deserve death, but was killed because Cain didn't listen to the Lord and deal with his anger.

God's children need to heed the unheeded advice the Lord gave to Cain. "If you do not do what is right, sin is crouching at your door: it desires to have you, but you must master it."

We need to remove any suppressed anger within us. We need to bring this unhealthy anger to the Lord and ask for His help to master it. As James 1:20 tells us, "human anger does not produce the righteousness that God desires."

In Genesis 4:1-9, God is not pleased with the offering of Cain. We learn that the offering Abel was worthy of favor and he brought his best to the Lord; however, Cain's offering was second rate and was inferior to what God expected from him. God saw the heart of Cain and was not satisfied with what he offered him. Although Cain became angry, he was aware of the quality of the offering he had brought to the Lord. Honestly, the Lord

오직 사랑과 열정으로 섬기는 대학

2011학년도 후기 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 접수기간 : 2011. 05. 13(월) ~ 06. 30(목)
- 홈페이지 : <http://gengrad.jj.ac.kr>
- 문의 : 입학대학원 : 063)220-2139 / 특수대학원 : 063)220-2179
 석교신학대학원 : 063)220-2663 / 교육대학원 : 063-220-2647
 대체의학대학원 : 063-220-220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http://gengrad.jj.ac.kr>

Aaron TAN (타이완건축대학 건축학 448)

싱가포르, 홍콩대학의 프로젝트 설계
 건축 도설 디자인 & 교육 캠퍼스 프로젝트 설계
 대형 고층빌딩, 연립 프로젝트 설계
 홍콩, 싱가포르 프로젝트 설계
 건축 발전회사, 학교 및 프로젝트 설계
 건축대학의 소극장 및 극장도 설계

최첨단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 조형성이 뛰어난 미래지향적 교육공간

캠퍼스 홀(Campus Mall)로서의 스타센터
 미래지향적인 세련된 디자인과 공간(RAD, Aaron Tan 설계)
 유틸리티스도서관, 국제회의장 등 문화적 네트워크 허브 공간

전주대학교

